

5·18 기념 전국 태권 꿈나무 광주에 모인다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10~17일 빛고을체육관 1959명 참여...12일 염주체육관서 헌혈 페스티벌도

제25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시장기 전국 남·여 중·고교 태권도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태권도협회, 광주시, 5·18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시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10~17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다. 남고부 755명, 남중부 568명, 여고부 342명, 여중부 294명 등 모두 1959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광주에서는 남고부 21명, 남중부 27명, 여고부 13명, 여중부 17명 등 모두 78명이 출전한다. 이 대회는 전국 태권 꿈나무들이 '민주', '인권', '평화'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태권도 꿈나무 발굴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와 함께 광주 도시브랜드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태권도협회는 이번 대회에 선수 등 1900여 명이 참가, 경제 파급효과가 25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회 기간인 12일 염주체육관 광장에서는 '5·18 민주적 헌혈 페스티벌'도 열린다. 5·18대회 참가 선수 및 대회 관계자와 광주시태권도협회 소속 390여 태권도 체육관장 및 지도자와 5·18대회 조직위원회, 광주시체육회 임직원 등 5개 단체들이 헌혈 나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항거하다 부상을 입은 시민,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인 헌혈 운동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다. 광주지역 출전선수 가운데 유력한 우승 후보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에서 핀급 1위를 차지한 홍승영(2년)과 2023년 종별선수권대회 헤비급 1위 문성고(이상 문성고·2년)다. 올해 대구 2·28 전국대회에서 미들급 3위를 차지한 김근우(문성중·2년), 2023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위, 2023년 2·28민주화운동기념 전국 태권도대회 라이트헤비급 1위를 차지한 최진우(3년·상무중)도 기대주다. 대회는 핀급과 플라이급, 페더급 등 11체급(고등부 10체급, 중등부 11체급)으로 나눠 체급별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개인 체급별 1, 2, 3위에게 메달과 상장이 수여되

며, 각 부별 최다득점자(최우수선수상)에게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가 주어진다. 부별 종합우승팀 지도자에게도 상품권 50만원과 상장, 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부별 단체우승팀 및 2, 3위 팀, 그리고 감투상과 장려상 등 단체 시상도 이뤄진다. 이영석 광주시태권도협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여러 해 동안 대회가 차질을 빚었음에도 늘 응원해 주고 성원해 준 학부모를 비롯한 내·외빈에게 광주시 태권도가족을 대신해 깊은 감사와 환영인사를 드린다"며 "8일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는 1980년 5월 민주와 인권, 평화를 위해 군사독재의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대회이니만큼 광주정신이 모두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알카라스 세계 1위 '예약' 男테니스 마드리드오픈 2연패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마드리드오픈(총상금 770만5780 유로) 2연패에 성공하며 랭킹 1위를 예약했다. 알카라스는 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안테나르트 슈트루프(65위)에게 2-1(6-4 3-6 6-3)로 이겼다. 이로써 알카라스는 2013, 2014년 대회에서 거꾸 우승한 라파엘 나달(14위) 이후 9년 만에 마드리드오픈 2연패에 성공했다. 4대 메이저 대회 바로 아래 등급인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인 마드리드오픈 우승 상금은 110만5265 유로(약 16억1천만원)다. 알카라스는 직전 바르셀로나오픈에 이어 투어에서 두 대회 연속 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광주FC가 9일 FC서울을 상대로 12라운드 원정경기를 맞는다. 사진은 지난 6일 대전전에서 공을 다루고 있는 엄지성. <광주FC 제공>

4경기 무승 광주FC "서울서 승점 따다"

K리그1 12라운드 원정 경기...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서 4승2무5패 7위...분위기 반전 위해 골 결정력 회복해야

광주FC가 승리를 노리며 서울로 간다. 광주는 9일 오후 7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하나원큐 K리그1 2023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인다. 지난 6일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광주는 날카로운 공격과 탄탄한 수비 등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는 공격지표에서 대전을 압도하고도 4경기 연속 무승 속 승점 1점을 더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4경기에서 승리는 없었지만 광주는 '광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거침 없는 공세를 펼쳤다. 이제 '골'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앞선 대전전을 통해 1라운드 로빈 일정이 마무리됐다. 한번씩 탐색전을 벌인 만큼 더 치열한 2라운드 로빈 일정이 기다린다.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광주 공격진이 승리를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대전전에서는 하승운과 이진희가 선발로 나서 전방 압박은 물론 수비기담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다. 교체 투입된 엄지성, 이희균, 허을은 화려한 개인기와 연계플레이를 선보이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강현과 정호연은 완벽한 커팅과 킥으로 중원에서 허리 싸움을 전개했고, 두현석과 김한길은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크로스로 경기를 이끌었다.

수문장 김경민의 활약도 눈부셨다. 김경민은 4개의 선방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경기수훈선수(MOM)에 선정됐다. 이번엔 만나는 서울은 6승 2무 3패(승점 20점)로 리그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일류첸코, 기성용, 팔로세비치, 황의조 등 스타플레이어들이 즐비하다. 특히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가 7골을 몰아넣으면서 리그 득점 1위를 달리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지만 광주는 감팀에 강했다. 물러서지 않는 패기와 적극적인 중원 압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광주에 골 결정력이 더해지면 다면 충분히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골 결정력 아쉬움 속 7위(4승 2무 5패·승점 14)로 1라운드 로빈 일정을 마무리한 광주가 서울을 꺾고 2라운드 첫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길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던 톰슨, 광주오픈 테니스 개인전 우승

챌린저 대회 시즌 2승

조던 톰슨이 2023 광주오픈 테니스 개인전 왕좌를 차지했다. 조던 톰슨(호주·단식 세계 랭킹 91위)은 지난 7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맥스 퍼셀(호주·89위)을 2-0(6-3, 6-2)으로 꺾고 우승했다. 톰슨의 챌린저 우승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로마 챌린저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직후 열린 인디언웰스 마스터스(ATP MASTERS 1000)에서는 32강에 진출하며 선전했다. 개인 톰산으로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폴럼버스 챌린저 II와 5월 영국에서 열린 서비톤 트로피 챌린저 등을 포함해 열린 번째 챌린저 우승이다. 톰슨은 폴럼버스와 로마를 포함 아홉 번째 하트코트 우승을 차지했고, 진디코트와 클레이코트에서는 한 차례씩 우승 경험 있다. 이번 대회 단식 3번 시드를 배정받은 톰슨은 개막일인 지난 1일 기준 최고 순위자로 1번 시드였던 퍼셀을 상대로 1시간 40분 49초 동안 경기를 주도해나갔다. 톰슨은 서브 에이스만 5개를 기록하는 등 맥스 퍼셀을 압도했다. 앞서 톰슨은 32강에서 박의성(한국·국군체육부대·682위)을 2-1(6-1, 6-7, 6-0)로 제압한데 이어 16강에서는 에브게니 돈스코이(러시아·256위)를 2-0(6-2, 6-4)으로 눌렀다. 톰슨은 시상식에서 "코트를 채워준 많은 관중들의



조던 톰슨이 7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맥스 퍼셀과 경기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응원이 인상적이었다"며 "광주에서 나를 향해 보내준 모든 응원과 박수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오픈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성남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폐회사에서 "협회 임원과 이사, 심판진 등 모든 대회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내년 대회는 예산 확충에 노력해 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품격있는 국제 챌린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출신 최지아씨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 위촉

광주 출신 스포츠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전문 스타트업 '스포티즘82'의 최지아(사진) 대표가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체육회(KSOC)는 최근 최지아 스포티즘82 대표를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는 스포츠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로, 국제종합대회 및 종목별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를 비롯해 스포츠 외교 현안, 국제 스포츠 교류 강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자문,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최 대표는 다양한 국제스포츠대회 조직위원회 활동 경력과 국제스포츠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포티즘82를 설립했다. 스위스 국제스포츠과학기술훈원(AISTS)과 공동으로 스포츠인재양성 프로그램인 'SEMOS 및 MSS KOREA'도 개설해 차세대 국제스포츠인재 육성에 기여해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또한 장애인아이스하키팀 회 이사와 광주시 청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포츠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장애인 종목 인지도 활성화를 위해 폭넓게 활동해온 청년 스포츠리더다. 최지아대표는 "광주에서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38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등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고, 내년 전남 장흥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도 완공될 계획"이라며 "국제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스포츠의 중심에서 한국 스포츠 외교와 국제 교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 2관 |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
| 3관 |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 4관 |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
| 5관 | 존 워 4 |
| 6관 | 드림 |
| 9관 |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드림, 리턴 투 서울 |
| 7관 | 씨네키움 스페셜의 문단속 |
| 8관 | 씨네키움 극장판 핑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남자 배꼽수비대, 리버우드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III 이충섭, 오교로 보낸 편지'
일시: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6